

## 민수기 6장 <나실인 서원>

1-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너희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완전히 바치겠다는 특별 서원, 곧 나실인 서원을 하려고 할 경우, 너희는 포도주와 맥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취하게 하는 음료는 무엇이든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안되고, 포도나 건포도를 먹어서도 안 된다.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기간 내내 포도나무에서 취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 씨나 포도 껍질을 먹어서도 안 된다.

**5 헌신하는 기간 동안 너희는 머리털을 깎아서는 안된다. 긴 머리는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알리는 지속적인 표가 될 것이다.**

**6-7 또한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해 바치기로 한 기간 동안 주검에 가까이 가서도 안된다.**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 너희 형제나 누이의 주검이더라도, 너희는 그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된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해 바쳤음을 알리는 표가 너희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8 헌신하는 기간 동안 너희는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한다.**

**9-12 누가 갑자기 너희 곁에서 죽어 너희가**

구별해 바친 머리털이 더럽혀졌을 경우, 너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날, 곧 칠 일째 되는 날에 머리털을 깎아야 한다. 팔 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 주검 때문에 더럽혀진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날로 너희는 다시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자신을 나실인으로 다시 하나님에게 구별해 바치고, 일년 된 어린양을 보상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너희의 헌신이 더럽혀졌으므로, 지나간 날은 날수로 세지 않는다.

**13-17 너희가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해 바치기로 한 기간이 다 찼을 때를 위한 법은 이러하다. 먼저, 너희는 회막 입구로 가서 너희의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일 년 된 건강한 어린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일 년 된 건강한 암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건강한 숫양 한 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고운 곡식 가루로 만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 한 바구니를 바치고,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나아와 너희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와 함께 숫양을 하나님에게 화목 제물로 바치고, 마지막으로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18 너희가 구별해 바친 자신의 머리털을 회막 입구에서 깎고, 그 깎은 머리털은 화목 제물 밑에 타고 있는 불 속에 넣어라.**

**19-20 너희가 구별해 바친 머리털을 깎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숫양의 어깨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개와 과자 한 개를 바구니에서 가져와서, 너희의 두 손에 얹어 놓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므로, 흔들어서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와 함께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그제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21 이것은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으로, 그가 따로 바치는 제물 외에 자신을 구별해 바치기로 서원하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때 지켜야 할 지침이다. 그는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에 따라 서원한 것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 **<아론의 축복>**

**22-23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고 일러 주어라.**

24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 주시기를,

25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26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27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시편 40편** <다윗의 시>

1-3 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

침내 굽어보시고, 내 부르짖음 들어주셨다. 나를 시궁창에서 들어 올리시고 진흙탕에서 끌어내셨다. 단단한 바위 위에 나를 세우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주께서 새로운 노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가르쳐 주셨다. 이를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

4-5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드리는 그대, 세상 사람들의 “확실한 것”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대는 복이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쌓인 곳.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께 견줄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말하려 해도 금세 말문이 막히고 마니, 지극히 크신

**주님을 숫자나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6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께 그 무엇을 드리려 해도 주께서는 그런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종교적인 모습, 경건한 모양새, 주께서는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7-8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대해 쓰신 기록을 읽고서, 나를 위해 베푸신 잔치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9-10 하나님, 나는 온 회중에게 주님을 선포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니다. 주께서도 아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길을 비밀로 하지 않았고 나 혼자 간직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주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얼마나 철두철미한 분이신지 다 말했습니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모든 내용을 다 말하여 온 회중이 알게 했습니니다.

11-12 그러니 하나님,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감추지 마소서.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뿐입니다.

시련이 한꺼번에 덮치고 무수한 죄악이 몰려와 나를 습격하니, 내가 죄책에 사로잡혀 내

**길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 최악  
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고 그 죄가 어찌나 무거  
운지, 내 마음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13-15 하나님, 너그럽게 보시고 몸소 나서 주  
소서. 어서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내 영혼을  
낚아채려는 자들이 당황하여, 고개를 떨구게 될  
것입니다.**

**재미 삼아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조롱과 창피  
를 당하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가차  
없이 야유와 조소를 받을 것입니다.**

**16-17 그러나 주님을 찾아 헤매는 이들,  
오, 그들은 노래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의 진면목을 아는 이들이 주님의 위대하**

심을 쉬지 않고 세상에 알리게 하소서.

나는 엉망진창입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소서. 주께서는 그리하실 수 있고, 그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 시편 41편 <다윗의 시>

1-3 불행한 이들의 존엄을 지켜 주어라. 기분이 좋아지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살피시고 튼튼하고 생기 있게 하신다. 원수 걱정 안 해도 되니, 이 땅에 사는 것이 복되다. 병들어 자리에 누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호사 되셔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돌보신다.**

**4-7 내가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다시 온전케 하소서.**

**내 죄가 나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원수들은 내가 고꾸라지기를 바라며, 내 죽을 날을 놓고 내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러 오면 내용 없는 뻔한 말만 늘어놓습니다.**

**나에 관한 험담거리를 모아서 길모퉁이 군중을 즐겁게 하는 저들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이 “친구들”이 동네방네 다니며 나를 비방하고, 위원회를 꾸려 나를 괴롭힐 계획을 꾸밉니다.**

**8-9 마침내 소문이 나옵니다.**

**“저 자 좀 봐. 몹쓸 병에 걸려 다 죽어 간다  
지? 의사들도 포기했다지 뭐야.”**

**허물없이 지내던 가장 가까운 벗마저, 집에서  
늘 함께 식탁을 나누던 벗마저, 내 손을 물어  
뜯었습니다.**

**10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저  
들에게 본때를 보이게 하소서 .**

**11-12 원수 진영에서 승리의 함성 아직 들리  
지 않으니, 분명 주께서는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주님 앞에 우뚝 세우셔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13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 아가서 4장

1-5 나의 사랑, 너무나 아리따워요. 아름다운 그대, 머리카락에 가려진 두 눈이 비둘기 같아요. 그대의 머리카락, 멀리서 햇빛 받으며 언덕 아래로 내리달는 염소 떼처럼 찰랑거리며 반짝여요. 아낌없는 환한 미소, 그대의 마음을 보여주네요. 힘 있고 정갈한 미소예요. 진홍색 보석

같은 그대의 입술, 우아하고 매혹적인 그대의 입매. 너울에 가린 부드러운 두 볼은 광채를 발하고, 눈길을 사로잡는 부드럽고 유연한 곡선, 다들 쳐다보고 감탄하며 흠모하지요! 그대의 두 젖가슴은 한 쌍의 새끼 사슴 같고 처음 핀 봄꽃 사이에서 풀을 뜯는 쌍둥이 노루 같아요.

6-7 그대의 몸, 그 멋지고 우아한 곡선, 부드럽고도 특별한 윤곽이 나를 부르니, 내가 가네. 새벽이 빛을 내뿜고 밤이 물러갈 때까지, 그대 곁에 머무르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그대, 내 사랑. 그 아름다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흠 하나 없네.

8-15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 나갑시다. 레바논을 떠납시다. 그대의 산속 은신처를 버리고 그대가 칩거하는 광야, 그대가 사자와 어울려 사는 곳, 표범이 지켜 주는 곳을 떠납시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대가 나를 보는 순간, 난 사랑에 빠졌어요. 그대의 눈길 한 번에 속절없이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대의 사랑은 희귀한 고급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그대의 향기는 고르고 고른 향료보다 특별해요. 내 사랑, 그대와의 입맞춤은 꿀처럼 달고, 그대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 마디 한 마디는 최고의 진미랍니다.

그대의 옷에서 들판의 싱그러움과 고산 지대의 신선한 내음이 풍겨요. 나의 연인, 나의 벗이여, 그대는 비밀의 정원, 나에게만 열려 있는 맑은 샘.

나의 많은 연인, 그대는 낙원, 살구와 복숭아, 오렌지와 배, 개암나무와 육계나무, 향이 나는 온갖 나무들, 박하와 라벤더, 향기로운 온갖 허브가 그대 안에 있어요. 그대는 정원의 샘, 레바논 산맥에서 흘러내린 샘물이 퐁퐁 솟구쳐요.

16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움직여라! 나의 정원으로 불어와 향기를 퍼뜨려 다오. 오, 나의 연인이 그이의 정원으로 드시게 하여라! 잘 익어 맛깔스러운 과일을, 따 드시게 하여라!

## **히브리서 4장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일 때>**

**1-3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분이 세우신 목표로 데려가는 동안, 우리 중에 자격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약속과 광야에 있던 그들이 받은 약속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그들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안식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노하여 맹세하며 말했다.**

**“그들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며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3-7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하실 일을  
다 마치셨음에도, 이런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했으나, 다른 구절에는  
“그들은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  
니다.**

**이 약속은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들은 자들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  
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로 날짜를 조정하시며 끊임없**

**이 약속을 갱신해 주십니다. 이것은 처음 초대장을 보내시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 귀를 막지 마라.**

**8-11 그러므로 이 약속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파기 되지 않았습니 다. 만일 파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 일자를 “오늘”로 갱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도착”과 “안식”의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다.**

**이 여정을 마치는 날,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틀림없이 안식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힘을  
내서 마침내 안식처에 도착하도록 하십시오. 순  
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합니  
다.**

**12-13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  
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  
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  
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꺾이지 못할 것  
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  
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신 대제사장〉

14-16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